

TV 3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⑤:40 웰컴 투 시월드(재) 50 집 나간 가족	00 KBS 뉴스광장	④:00 여기는 브라질 16강전 (코스타리카vs그리스)	⑤:00 2014 브라질 월드컵 16강전 (코스타리카:그리스)	⑤:00 브라질 2014 16강전 (코스타리카:그리스)
7	50 인간극장	00 2014 브라질 월드컵 특집 월드컵 하이라이트	00 MBC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모두 다 김치)	00 KBC 모닝와이드
8 00 새 시지도사에게 듣는다 15 굿모닝 A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00 한국의 맛 30 아침연속극 (나만의 당신)
9 00 신문이야기 들쭉구 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순금의 땅)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2014 브라질 월드컵 하이라이트 올라! 브라질	10 좋은 아침
10 팩트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TV동화 빨간 자전거 55 튜튼생활체조(재)	50 2014 브라질 월드컵 특집 월드컵 아래나	45 영상기행 아름다운 지구	30 SBS 뉴스
11 20 정치이야기 是非非非	00 KBS네트워크 특선 경남 100경 원정정복 55 바른말 고운말	45 월화 드라마 (트로트의 연인)(재)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2 20 뉴스특보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 뉴스 20 문화 특보	00 SBS12뉴스 30 브라질 2014 하이라이트
1 30 뉴스특급	00 TV 고이라 50 콘서트 필(재)		10 MBC네트워크 특선 황해 2부 (공존의 바다)	
2 40 직인직실	30 영상앨범 산(재)	00 KBS 뉴스타임 10 다큐멘터리 3일(재)	05 한국사, 탐	00 SBS뉴스 10 네트워킹 현장 고향이 보인다
3 50 정유관의 시사방법	00 뉴스토크	00 후토스 읽어버린 숲(재) 25 주유동 동물탐정(재) 55 TV우치원 풍다공	00 MBC 경제뉴스 10 키즈CSI 과학수사대 40 헬로킴즈 숲속마을 뽕뽕	10 세내포트
4 50 쾌도난마	00 시사잔담 55 튜튼 생활 체조(재)	25 쿠리가 캐리투스 코리아 55 법상의 신(재)	30 특? 특! 키즈쿨	00 매일음악 2 30 내 마음의 크레파스스페셜
5	00 KBS 뉴스 5 20 동물세계 40 남도지오그레피		00 MBC이브닝 뉴스	00 SBS 슈퍼라이드 15 KBC저녁뉴스 30 날씨와 생활 35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6 00 김승권의 뉴스 TOP10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생생 정보통	20 생방송 '빛날'	05 닥터 365 10 KBC 생방송 투데이
7 20 뉴스특보	00 KBS 뉴스 7 30 우리말 겨우기	50 일일드라마 (빠꾸기 등지)	15 일일연속극 (소원을 말해봐)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터치 따라따라 20 일일드라마 (사랑만 할래)
8 20 백일섭의 그때 그사람 스페셜	25 일일연속극 (고양이는 있다)	30 생생 정보통 플러스 55 위기탈출 넘버원	55 MBC 일일특별기획 (임마의 정원)	00 SBS 8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논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가요무대 55 긴급출동 24시	00 월화 드라마 (트로트의 연인)	00 월화 드라마 (드라이앵글)	00 월화드라마 (닥터 이방인)
11 0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30 KBS 뉴스라인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5 더 런던	15 브라질 2014 특집 힐링캠프 in 브라질
12 10 모큐드라마 싸인(재) ①:20 부부극장 공각기(재)	30 TV, 책을 보다	30 여기는 브라질 16강전 (프랑스vs나이지리아)	15 MBC 뉴스24 30 2014 브라질 월드컵 16강전 (프랑스:나이지리아)	35 브라질 2014 16강전 (프랑스:나이지리아)



33년만의 무대 3500여 관객 환호 ... 전인권·바비킴 게스트 참여

33년 만에 컴백한 김추자(63)는 신들린 듯한 표정과 제스처, 춤을 추며 온몸으로 노래했다. 1970년대를 풍미한 전설의 '세시디바'답게 그는 무대에 벌러덩 누워 두 다리를 쭉 펴고 노래하는가 하면, 가슴을 킁기고 엉덩이를 살랑살랑 흔들거나 열정적인 헤드뱅잉으로 존재감에 방점을 찍었다.

28일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김추자 컴백 공연 '늦기 전에'에서다. 33년간 주재할 수 없는 '가'를 어떻게 잡았는지 신기할 정도로 그는 예나 지금이나 찾아볼 수 없는 가요계의 유일무이한 캐릭터였다.

이마에 알록달록한 밴드를 두르고 히피 스타일로 등장한 그는 첫 무대부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이날 발표할 새 앨범 타이틀곡 '몰라주고 말았어'를 부른 그는 '나인 지인정 나를 몰라 주었고 말았어~'라는 특유의 발음과 굽직한 음색으로 리듬을 밀고 당기며 노래했다. 머리를 뒤로 젖히고 발끝에서 끌어올린 듯한 절곡한 소리를 뿜어내는 광경에 3500여 관객은 응원의 박수를 보냈다.

1970년대 청년들의 큰 사랑을 받은 그의 명곡은 중장년 된 관객들을 순간에 그 시절로 돌려놓았다. '커피 한잔', '빛속의 여인', '후회', '남은 먼 곳에', '늦기 전에' 등의 히트곡이 나올 때면 관객들은 노래를 따라부르거나 휘파람을 불었다. 환갑이 넘는 김추자는 때론 보컬의 힘이 달려 음정이 떨어지고, 계단이나 의자에 앉아서 노래하거나, 무대 준비가 늦어져서 노래 한 곡을 반주만 흘러보내 아쉬움을 줬지만, 특유의 제스처로 시선을 사로잡으며 무대를 이끌었다.

'커피 한잔'에선 두 발로 바닥을 구르며 '내 속을 태우는 구름~'하고 절박한 심정을 표현하고, '남은 먼 곳에'를 부를 때는 얼굴 근육을 떨며 바이브레이션을 넣었다. 독특한 안무가 간접에게 보내는 수신호라며 간접성이 나왔던 '거짓말이야' 무대에서 댄서들과 함께 엉덩이를 흔들었고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에선 거수경례를 하고 노래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이키델릭 록부터 핑키한 솔, 네오 트로트까지 다양한 장르의 레퍼토리를 각각각색의 소리로 표현하는 보컬이 울림을 줬다. 핑키한 곡에선 허스키한 진성으로 귀를 때리다가 블루스풍의 노래에선 호흡을 가다듬고 소리 내 개성을 집중시켰다.

그를 뒷받침한 건 결혼한 연주자들이었다. 김추자의 앨범에도 참여한 송승섭(베이스), 한상원(기타), 정원영(피아노)은 이날도 무대에 올라 탄탄한 연주로 공간을 채웠다. 이들은 하루 8시간 이상씩 연습하며 김추자의 복귀 무대에 힘을 보탤다.

이날 공연에는 김추자를 축하하기 위해 여러 후배 가수들도

모여들었다. 들국화의 전인권과 가수 바비킴은 게스트로 참여했다.

전인권은 "우리 민족에게 자유란 걸 알려준 분이다. 옛날에도 대한민국을 흥분시켰고 앞으로도 흥분시키길 기대한다"며 '그것만이 내 세상'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또 객석에서 관람하던 인순이는 꽃바구니를 들고 무대에 올라 "김추자 선배는 우리 시대의 전설"이라며 "노래 시작할 때 선배님의 곡으로 연습을 많이 했고 '남은 먼 곳에', '무인도'를 즐겨 불러 내게는 더욱 특별한 분이다. 33년은 짧은 시간이 아니다. 당신의 열정과 노래하고 싶은 용기에 존경을 보낸다"고 축하했다.

김추자는 진행자로 나선 방송인 오상진이 공연 소감을 묻자 "기분이 좋았다"는 한마디로 소감을 밝혔다.

그는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고 인간은 예술을 남긴다는데 그간 (가정을 꾸리며) 할 일을 해왔으니 앞으로는 예술을 제대로 해보겠다"고 말했다. 공연장을 나오며 만난 관객 정광자(61) 씨는 "20대에 김추자 씨의 노래로 정춘을 보낸 팬인데 딸 내외가 티켓을 선물해줬다"며 "김추자 씨가 젊은 날보다 목소리는 더 거칠어졌지만 그 시절 느끼고 본 표정과 열정은 변치 않아 행복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추자의 시원한 보컬을 기대한 일부 관객은 기량이 전성기 시절에 못 마친다며 실망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또 계단이나 의자에 앉아 노래하는 무대 매너 등을 지적하며 공연 초반 몇몇 관객은 기획사에 환불을 요구하며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에는 "부도남매도 효도도 할 겸 젊을 적 김추자 씨 열렬한 팬이었다" "하기에 VIP석으로 예매 해 드렸는데 무척 실망했다고 한다" 등 항의성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 이에스스피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9일 "공연 도중 일부 팬들이 그런 얘기를 전해주었다"며 "김추자 씨가 공연 당일 새벽 4시까지 연습했고 33년 만의 무대여서 긴장을 한 탓에 공연 초반 몇 곡은 목소리가 다소 떨렸지만 시간이 갈수록 제소리를 찾았다. 계단이나 의자에 앉아서 노래한 건 리허설 때부터 예정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관객들의 호불호가 갈린 데 대해 공연을 본 업계 전문가는 "김추자 씨는 음색과 퍼포먼스가 독특해 호불호가 갈리는 가수"라며 "젊은 날의 김추자 씨의 공연을 본 관객이 얼마나 되겠나. 전성기 시절의 목소리를 IP에서 듣고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쉬웠을 수 있지만 함께 본 뮤지션들은 김추자 씨의 보컬과 독특한 캐릭터에 감탄했다"고 말했다.

EBS

05:00 World News Review	09:40 부모 (가족을 위한 식단)	14:15 시계마을 티키톱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
05:40 나의 성공비결	10:10 EBS 특강	14:30 부릉! 부릉! 브루미즈	19:00 세계 건문록 아틀라스(재)
06:10 EBS 인문학 특강(재)	10:50 최교의 요리비결	14:45 미앤마이로봇	19:30 EBS뉴스
07:00 놀이터 구조대, 뽀인(재)	11:50 세계테마기행	15:00 초능력 특공대	19:50 대한민국 화해프로젝트 (용서)
07:15 오스카의 오아시스(재)	12:00 속디 라이오 라오스 1부 (재)	15:15 모피와 친구들	20:40 다크 오늘
07:30 풍선 코끼리 발루보(재)	12:00 EBS 정오 뉴스	15:30 제로니모의 모험	20:50 세계테마기행
07:45 뽀롱뽀롱 보로로(재)	12:10 EBS 스페이스 공감1(재)	16:00 동물명 유전자(재)	21:30 한국기행 (서울역사기행 1부)
08:00 당동당 유전자	13:05 지식채널e	16:20 오스카의 오아시스	21:50 EBS 다크프라임
08:20 부다다공(재)	13:10 울거은 수확 EBSMATH	16:30 놀이터 구조대, 뽀인	21:50 EBS 다크프라임
08:35 뽀롱뽀롱 뽀롱이	13:20 외왕내외 친구들	16:45 곰디와 친구들	22:45 달라졌어요
08:50 곰디와 친구들	13:30 꼬마 기사 마이크	17:00 방귀대장 뽀롱이(재)	17:15 풍선 코끼리 발루보
09:05 오보탐험의 파오파오(재)	13:45 치료와 친구들	17:30 뽀롱뽀롱 보로로	24:05 지식채널e(재)
09:20 부릉!부릉! 브루미즈(재)	14:00 헬로 코코롱	17:4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24:10 EBS 인문학 특강
09:35 뽀롱			

EBS플러스1

00:00 알짜 국어 문법	11:40 최태성의 교과서에 나오는
00:50 2013 논구술	12:15 수능특강 (수학 I A형)
(인문계 주제별 기출분석)	13:05 " (수학 II)
01:40 올림포스 (영어독해의 기본 1)	14:00 " (국어 A형)
02:30 " (수학 I)	14:50 " (한국사)
03:20 뉴 탐스런 (생활과 윤리)	15:40 " (동아시아사)
04:10 " (사회)	16:30 " (세계사)
05:00 " (한국사상)	17:20 " (세계지리)
05:50 2013 포스 (수학 I A형)	18:10 " (법과 정치)
06:40 암축탐스런 (물리 I)	19:00 " (생활과 윤리)
07:30 2014 포스 (문학 I)	20:00 EBS-N제 (국어 A형)(재)
08:20 올림포스 (영어독해 기본 1)(재)	21:00 " (수학 A형)(재)
09:10 " (수학 I)(재)	22:00 인터넷 수능 (사회)(재)
10:00 뉴 탐스런 (수학 I A형)(재)	
10:50 2013 포스 (수학 I A형)(재)	

EBS플러스 2

07:00 2014 공인중개사 시험대비강좌	16:20 " (국어 5-1)
07:30 나의 성공비결	16:50 " (국어 6-1)
08:00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비 강좌	17:20 만점왕 평가문제풀이 (전과목 5-1)
08:30 한자능력검정시험 대비 강좌	18:00 TV 중학 (문학 3)
09:10 TV 중학 (국어 ①②)	18:40 " (비문학 3)
09:50 " (역사 1)	19:20 배움 플러스
10:30 " (국어 ③④)	19:30 중학 과학 자유탐구
11:10 " (수학 2(상))	20:00 중학 개념 풀장내기 (국어)
11:50 " (수학 1(상))	20:40 " (영어)
12:30 등업산공 (수학 2(상))	21:20 " (과학)
13:10 " (과학 2(상))	22:00 " (수학)
13:50 " (수학 2(상))(재)	22:40 성교역 애니메이션
14:30 " (국어 3-1)	23:20 중학 6교시 영문법1
15:20 만점왕 (국어 4-1)	24:00 세계 건문록 아틀라스
15:50 " (국어 4-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30일 (음 6월 4일 壬申)

子	36년생 당당한 값음이 있었다. 48년생 기쁨은 짧고 아쉬움은 길 것이다. 60년생 몇 번이고 반복해서 자세히 살펴보자. 72년생 새롭게 펼쳐나가는 때가 있으리라. 84년생 새창이 쏟아질 것이니 우선 피하고 보아한다. 행운의 숫자 : 93, 90	午	42년생 현상이 유래하게 된 원인부터 살펴 볼 일이다. 54년생 사정을 다 듣고 나면 수긍하게 될 것이니라. 66년생 중점 사항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자. 78년생 단번에 거침없이 이루어질 것이니 예의 주시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20, 47
丑	37년생 함처지면서 단련을 받게 될 것이다. 49년생 규모의 대소가 아니라 핵심 유무의 문제이니라. 61년생 가보이아만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73년생 제대로 인식해야한다. 85년생 굳이 열매 일 필요까지는 없다. 행운의 숫자 : 25, 06	未	43년생 시간을 그는 지혜보다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때이다. 55년생 발상은 참신하나 점진적이야만 하니라. 67년생 결기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상황이다. 79년생 상징하는 의미는 크다. 행운의 숫자 : 03, 55
寅	38년생 자신의 수중에 두는 것이 편하다. 50년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62년생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74년생 객관성과 신빙성을 참고하지 않는다면 오만의 소지가 다분한 판국에 위치해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17, 59	申	44년생 주권과 소신을 가지고 임해야 비전이 보인다. 56년생 어깨춤이 절로 나오는 경사가 있었다. 68년생 진중하게 기다리며 미래를 조망해 볼 필요가 있다. 80년생 좋은 여건이 갖춰져 가고 있는 단계이다. 행운의 숫자 : 71, 41
卯	39년생 상대의 농담 속에는 시시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51년생 기막게 좋은 운수이니라. 63년생 재실하게 해야 할 처지라고 볼 수 있다. 75년생 하찮게 여겨 왔던 바의 역할이 크다. 행운의 숫자 : 38, 65	酉	45년생 중도에서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알차게 거두리라. 57년생 먼저 상대의 말을 다 들어보아야 할 일이다. 69년생 구조가 튼튼하고 합리적인 체계이다. 81년생 겸손의 결과는 투자 없이 얻는 순이익이니라. 행운의 숫자 : 78, 82
辰	40년생 괴롭고 수고로운 일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52년생 공감과 친화력이 결과적으로 생산성을 향상 시킬 것이다. 64년생 흥미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리라. 76년생 순서와 절차대로 이행해야만 차질이 없다. 행운의 숫자 : 70, 81	戌	46년생 자각이 상대적으로 작용하게 되리라. 58년생 일차하지 않아서 순조롭게 당황할 수 있다. 70년생 결모습만 달리하고 있을 뿐 내면은 큰 차이가 없다. 82년생 침착 같이 믿었던 이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3, 32
巳	41년생 최선을 다 해왔는지 돌아켜 볼 일이다. 53년생 상대가 더 절실히 원하고 있으니 쉽게 타결 되겠다. 65년생 아쉬운 상황에서 급하게 서두르는 모습이다. 77년생 손발과 같이 서로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46, 10	亥	47년생 마음을 비운다면 난관을 수월하게 극복할 수 있느니라. 59년생 누적된 폐단을 해소할 수 있는 적기이다. 71년생 방해자나 가벼운 장애물이 보인다. 83년생 상당한 손실을 치르고서야 귀중한 경험을 쌓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86, 96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

'대중성' 대신 '나만의 색' 택했다



정준영, 미니앨범 '틴에이지' 발매 ... 전곡 작곡·프로듀싱

그동안 공연 무대보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더 자주 볼 수 있었던 정준영이 본업으로 돌아왔다. 8개월만에 두번째 미니앨범을 발매하는 정준영<사진>은 조금은 긴장한듯하면서도 차분한 말투로 정성스럽게 앨범을 소개했다.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미니앨범 '틴에이지' 발매 쇼케이스에서 정준영은 "곡 작곡 과정에서 사실 대중성을 조금도 신경쓰지 않았다"면서 "앨범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을 분도 계속될 수 있지만 하고싶은 록 음악을 해서 행복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곡이 바로 대중가요라고 생각한다"라면서 "내가 하는 록 음악이 시끄럽고 길것으로 보일 수도 있었지만 잘 되면 내 곡도 대중가요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소신을 밝혔다.

'꾸꾸는 어른'을 콘셉트로 하는 이번 앨범에는 앨범명과 동명의 타이틀곡을 비롯해 모두 여섯 곡이 담겼다. 얼터너티브 록 장르를 기초에 깔고 있는 그의 음악은 짙한 밴드 사운드와 특유의 사운딩이 도드라진다.

정준영은 전곡의 작곡과 프로듀싱에 참여했다. 거기에 음악뿐 아니라 앨범의 전체 콘셉트부터 재킷 디자인, 사진에 이르기까지 앨범 기획을 주도했다고 소속사 CJ E&M 관계자는 설명했다.

"제가 가장 편하게 부를 수 있으면서 보컬의 장점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스스로가 가장 잘 아니까요. 감정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자작곡이라고 생각해 다 작곡을 했어요."

정준영은 작업 과정에 대해 "처음에는 무조건 '나는 잘될 거야'라는 야망만 있었는데 막상 실천하다보니 내가 모던 음악적 세상이 넓더라"라면서 "예전에는 밴드 멤버들과 함께해서 편곡 작업이 상대적으로 편했는데 이번에는 혼자서 여러 악기 라인을 만들자니 굉장히 어려웠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앨범 제목이 '틴에이지'다. 정준영의 실제 10대는 어땠을까. 그는 "막장이었다. 공부하는 아이는 아니었다"라고 너스레를 떨다가도 "다행히 음악에 대한 열정이 열여덟살 때부터 생겼다. 음악에 대한 욕심이 컸다"고 진지함도 보여줬다.

정준영은 이날 쇼케이스에서 MBC 라디오 프로그램 '심스타파'의 새로운 디제이가 됐다는 소식이 전했다. 그는 "예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기분이 너무 좋다"고 말했다.

'1위 공약'을 묻자 "방송에서 기타를 부수겠다. 맛있는 것 같다"라고 호기를 부리다가도 금세 "저렴한 기타로 하겠다"고 물러났다. 또 해외시장 진출 계획이 없냐고 물으니 "재밌을 것 같아서" 꼭해보고 싶다고 한다. 쇼케이스 인터뷰 내내 진지한 가운데 번뜩이는 '영동함'이 묻어났다.

"해외진출 하고 싶죠.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가고싶은 나라는 미국과 영국인데 아직 (실력)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더 보강해야 할 것 같고요. 먼저 일본의 록 시장에 도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일단 한국에서 잘 되고 나서 뭐라도 하고 싶어요." (웃음)

연락처